

# 광주, 개천절 집회발 감염 차단 '속얹이'

유입형감염 '긴장'... 법적·행정적 전면차단 어려워  
주최측 관련 광주지역 등록단체 없는것으로 파악  
"참석자 적을것으로 보지만 긴장의 끈은 놓지않아"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 임차·운행거부 공개적 선언

광주시가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도심집회(發) 지역감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유입형 감염 차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으나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전면 차단은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정식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1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서울 개천절 집회와 관련,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데다 주최측 보수단체와 관련된 광주지역 등록단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참석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8월15일 광화문 집회를 거울 삼아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 집회를 신고한 435건 중 10인 이상 신고하거나 금지구역 내 집회를 신고한 87건에 대해 금지를 통보한 상태다.

개천절에 집회를 열겠다는 보수단

체는 자유연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우리공화당 천만인무적석방운동본부 등으로, 광주지역 등록 시민사회단체 711개 가운데 이들 단체와 관련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광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35개사(보유대수 946대)가 서울 개천절 집회와 관련한 임차와 운행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과 8·15 광화문 집회 학습효과로 서울 도심집회발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플래시몹을 연상케하는 게릴라식 집회나 개인적 신념에 따라 삼삼오오 참석하는 것까지 통제할 현실적 수단이 없어 시 방역당국으로선 속단 태우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전면 금지명령이나 강



력한 행정명령이 없다 보니 "시민들의 자발적 불참과 자제"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8·15 광화문 집회 관련 광주지역 확진자는 이날 현재 92명으로 직접 참가자 2명과 집회 참석자를 통한 'n차 감염' 66명, 기타 4명 등이다.

지난 2월 이후 광주지역 전체 확진자(484명)의 20%에 이르는 수치다.

누적 확진자 가운데 광화문 집회나 '송파 60분', 방문판매업체발 감염 등 외지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뒤 광주에서 n차 감염을 시킨 확진자만 37

명에 달한 점도 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 집회 이후 동선 숨기기 등으로 초기방역에 애를 먹었고, 100명 가까운 관련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역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불법 집회나 다른 지역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추석 연휴 집에서 보내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봉우기자

## 만취 운전엔 상대 운전자 폭행까지, 화물차 기사 구속

음주운전을 일삼고 차선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때린 화물차 기사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폭행 등)로 A(6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1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의 도로에서 자신의 1.5t 트럭을 무면허 음주운전하던 중, 시비가 붙은 승용차 운전자를 수차례 밀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행 도중 상대 운전자 B씨를 향해 '차선을 지키지 않는다'고 고함을 질렀으며, 이후 하차해 B씨를 수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위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A씨의 위협 운전 또는 보복 폭행 정황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 순천시 자가격리 이탈해 낚시하러 다닌 2명 송치

전남 순천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낚시하러 다닌 30대와 50대 2명이 적발됐다.

16일 순천경찰서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A(30대) 씨와 B(50대)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격리장소를 떠나 낚시를 했으며 보건당국으로부터 지난 2일 고발됐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자가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써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 유형가 취객 노려 21차례 상습절도 50대 노숙자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취객을 노려 금품을 훔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결제한 혐의(절도 등)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병원 앞에서 취객의 80만 원 상당 휴대전화·지갑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15만 원을 부정 결제하는 등 총 21차례에 걸쳐 44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심야시간대 유형가를 서성이며, 길에서 잠든 취객 등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전부터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과거에도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절도·점유이탈물 횡령 등 동종 범죄만 20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잠적,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 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중앙선 침범 뒤 사고 낸 10대 입건

무면허로 렌터카 주행 중 교통법규를 어기고 사고를 낸 1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등)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15일 오후 4시10분께 광산구 장덕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55)씨의 1t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A군은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지인이 빌린 차를 운전했고, 사고 뒤 바퀴가 터진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 "고위험군 영업제한 해제" 광주 노래연습장 업주들 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광주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 영업제한 조치 해제'를 요구했다.

대한노래연습장협회 광주지회 200여명은 1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사를 찾아 "최근 상부지구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자발적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염이 확산돼 노래연습장은 한달여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역의 노래연습장에서는 그동안 단 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영업제한이 유지되고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업종 전체에



광주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1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사를 항의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 영업제한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대해 영업제한을 하지 말고 해당업소만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노래연습장 업주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래연습장 광주지회는 이날 항의 방문에 앞서 참석자 명단을 작성한 뒤 청사로 진입했다.

이어 20여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1층 로비에서 광주시청 관계자와 1시간정도 면담을 했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하게 감소하면 오는 20일 영업제한 해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등에 건의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해산했다.

김민정기자

## 여수해경,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 단속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6일 해경에 따르면 항·포구와 해역별로 6개 전담반을 편성하고 우범 선박이나 전력차, 장물 취급 업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또 수산물 유통이 집중되는 전통 수산물 시장과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범법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해경은 ▲추석 전 수산물 유통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 사범 ▲장기 조업 어선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상습 선불금 사기 행위 ▲마을 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에 침입 절도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맞는 한가위 명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